



올 가을 코믹영화에 빠져봐~

▲왼쪽부터 '춘몽' '견기왕' '럭키'

'럭키' 예매율 1위... '국민 호감남' 유해진 출연에 호응 '견기왕' '춘몽' 등 개봉 앞두고 한국영화 상승세 기대

한동안 재난영화나 역사물, 액션 누아르 등 '무거운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었다면 소소한 웃음을 주는 코미디나 멜로 영화가 울가를 극장가를 찾았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유해진 주연의 코미디영화 '럭키'(이계백 감독)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럭키'는 개봉 하루 전인 이날 오전 9시 현재 실시간 예매율 1위(27.3%)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외화가 독식하다시피 한 가을 극장가에 한국영화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해진은 지난 '해적: 바다로 간 산적'(2014) 등에서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력을 검증받았다. 최근에는 tvN '삼시세끼'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 '국민 호감남'으로 떠올랐다. '럭키'는 오랜만에 나오는 코미디영화라는 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 대형배급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부자들'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회

비판적이거나 애국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찾는 관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럭키'는 킬러(유해진)가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진 뒤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자신을 무명배우 재성(이준)으로 착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일본의 원작영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유해진은 카리스마 넘치는 완벽한 킬러 '형욱'부터 허당기 많은 무명 액션배우 '재성'까지 상반된 상황에 놓인 두 캐릭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능숙한 코미디 연기를 보여준다. 심은경이 주연한 '견기왕'(백승화 감독)은 '무조건 빨리, 무조건 열심히'를 강요하는 세대에 지친 청춘들을 위로하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선전적 필미 중후군으로 차를 타지 못해 왕복 4시간 걸리는 학교까지 매일 걸어 다니는 여고생 만복(심은경)이 주인공이다. 만복은 육상경기 경보를 통

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찾아가간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여느 영화처럼 목숨 걸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뻔한 결말로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전히 가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심은경은 12일 왕십리 CGV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연기활동을 했지만 다른 10대들과 마찬가지로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동안 더 잘해야 한다는 대만 초점을 맞춰 스스로 여유가 없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 영화의 열개는 단조롭고 극적인 장치도 많지 않다. 그러나 만복이 꿈을 꾸는 장면에서 '상상중'이라는 자막을 붙이거나, 만복이네가 키우는 소의 시선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등 만화적 발상이 영화를 한층 유쾌하게 만든다. 백승화 감독은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 조

금 느린 속도로 가더라도 괜찮다는 위로가 담긴 영화"라고 소개했다. 개봉일은 이달 20일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춘몽'(장률 감독)은 13일 간판을 내린다. 병든 아버를 간호하며 술집을 운영하는 예리와 예리 곁을 맴도는 세 남자 이준, 정범, 종빈의 이야기다. 어딘가 모자란 듯 보이지만 각각의 아픈 사연을 지녔으면서도 사랑과 우정을 지킬 줄 아는 세 남자의 캐릭터가 예사롭지 않다. 제복처럼 봄날의 꿈인지 현실인지 명확한 선 구분을 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이 흑백의 영상 속에 펼쳐진다. 영화 속 주 무대는 재개발이 예정된 수색역과 첨단 산업구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다. 요즘 층무로에 가장 뜨고 있는 여배우 한예리와 양익준(홍파리), 박정범(무신일기), 윤종빈(범좌외의 전정) 등 3명의 감독이 메가폰을 내려놓고 주연을 맡았다. 여기에 신민아, 유연석, 김의성, 김태훈, 강산에 등이 감쪽 출연했다. /연합뉴스

유승호, 왕세자로 안방극장 복귀

TV 사극 '군주-가면의 주인' 캐스팅



유승호(23)가 TV 사극 '군주-가면의 주인' 남자 주인공이 됐다고 이 드라마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가 12일 공개했다. 20부작인 '군주'는 조선시대 전역의 물을 사유화해서 부와 권력을 얻은 조직 권주회에 맞서 싸우는 세자 이선(유승호 분)의 이야기다. 제작사는 "유승호가 고풍받는 백성에게 희망이 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하는 강한 군주로 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는 "탄탄한 대본과 매력적인 이선 캐릭터에 매료됐다"면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군주'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는 캐스팅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12월 촬영을 시작한다. 제작사는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MBC와 편성 시기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 미국서 리메이크 된다

CBS, '굿닥터' 이어 추진

박신양이 주연을 맡아 성공한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미국서 리메이크된다. 12일 CBS와 '데드라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미국 메이저 방송사 CBS를 통해 리메이크가 추진된다.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와 '하와이 파이브 오' 등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다니엘 대 김이 설립한 3AD 등이 CBS와 파트너가 돼 리메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3AD와 CBS는 KBS 2TV '굿닥터'의 리메이크도 추진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개천의 용' 출신 김사 조들호가 검찰 비리를 고발한 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치다가 제복처럼 동네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다. 법정드라마가 많은 미국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리메이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에 리메이크 판권이 수출된 다른 한국 드라마들이 이렇저러한 난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미국 시장에 친숙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승산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CBS는 미국판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으로 한인 변호사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 한인 변호사가 폐기에 넘치는 신참내기 변호사와 짝을 이루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약자의 편에서 변호를 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그릴 계획이다. 박신양과 강소라 등이 출연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지난 5월 자체 최고 시청률 17.3%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나라로 떨어진 조들호가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나 약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정의를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는 이야기는 박신양의 열연과 맞춤형 연기를 얻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감성애니 하루(재)	00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재)	00 앙코르 MBC스페셜 (방송, 상식을 뒤집는다) 지방의 누명 2부(재)	00 TV블로그 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청사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품지락 55 KBC 산사음악회
1	00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30 별별가족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스포츠 2016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골프	55 닥터 365
2	00 제97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 365
3	55 튜튼생활제조 (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해! 동물탐대 2 55 책갈피 요정 모모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30 고행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30 주간연예수집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안방 저두아 30 SBS 뉴스파レード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016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아이런데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황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문화의 달기회 (조선의 달행아리, 유림을 사로잡다)	10 해피 투게더	10 2016 DMCC페스티벌 하이서울어디든 특집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영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타키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방송토마토 조개수프와 연이 스테이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원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오솔상자 15:45 코코로 카오 16:15 두디다콩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영 유치원1~3(재) 17:30 뽀뽀뽀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천하장성, 광시 4부 물이 빛낸 대저장(재)) 21:30 한국기행 (귀뚜라미 투어 4부 천바람 불매 제 1차)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인생수업 배태환-3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이유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3일 (음 9월 13일 戊辰)

<p>子</p> <p>48년생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60년생 한 발 짝도 벗어날 수 없었다. 72년생 평이함에서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볼지하다. 84년생 동생이 반복된다면 고통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1, 74</p>	<p>丑</p> <p>49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61년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73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라. 85년생 너무 늦었으니 살기전에 서둘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7, 03</p>	<p>寅</p> <p>50년생 정도를 조절하면서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62년생 참으로 쉬운 일이니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74년생 막혔던 송문어 터지는 활로가 보일 것이다. 86년생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될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13, 38</p>	<p>卯</p> <p>51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63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느니라. 75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다. 87년생 유혹에 휘말릴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04</p>	<p>辰</p> <p>40년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52년생 국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64년생 귀한 옥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느니라. 76년생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를 놓치지 마라. 88년생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0, 27</p>	<p>巳</p> <p>41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53년생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5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77년생 개화하는 형상이로다. 89년생 잠된 인연과의 만남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5, 10</p>	<p>午</p> <p>42년생 무모함과 용기는 확연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54년생 가까이 있는 이의 도움이 제일 실용적인을 알라. 66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라. 78년생 지나치면 역효과를 내기에 총변하다. 행운의 숫자 : 20, 19</p>	<p>未</p> <p>43년생 손질을 한다면 바람직한 판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55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개하라. 67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79년생 기조는 불변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리라. 행운의 숫자 : 77, 16</p>	<p>申</p> <p>44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림돌을 만날 수 있다. 56년생 소비적이지는 아니 된다. 68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80년생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매우 긴요할 때가 많다. 행운의 숫자 : 17, 39</p>	<p>酉</p> <p>45년생 가려졌던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리라. 57년생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69년생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81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연속성을 담보한다. 행운의 숫자 : 88, 54</p>	<p>戌</p> <p>46년생 치우쳐 있지는 않나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58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70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라. 82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즉시 연락해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18, 98</p>	<p>亥</p> <p>47년생 지름길을 택해서 골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59년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71년생 적극적이어야겠다. 83년생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9, 65</p>
---	--	---	--	---	--	---	---	---	--	---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